



미 증시, 중앙은행 긴축부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경계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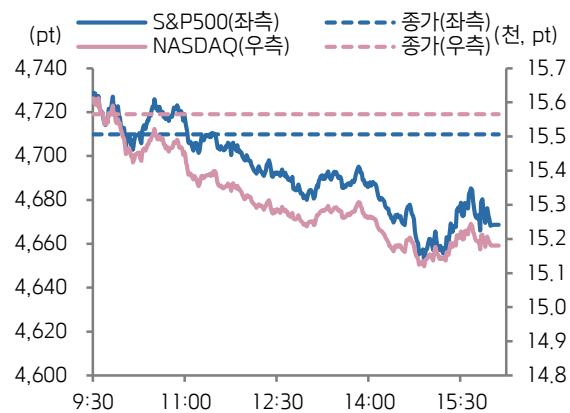
16일(목) 미국 증시는 ECB의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BOE의 금리인상 등 메이저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 가운데, 어도비(-10.1%) 등 주요 테크주의 실적 부진, 18일(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둔 수급 변동성 확대 등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다우 -0.1%, S&P500 -0.9%, 나스닥 -2.5%, 러셀 2000 -2.0%)

FOMC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혼재된 경제지표 결과 속에서 상승 출발 이후, 17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둔 대형 기술주 매도 압력과 BOE의 금리인상 여파로 변동성 확대. 전일 FOMC에 이어 진행된 ECB 통화정책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 테이퍼링 계획은 기존 3월 종료를 유지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 하지만 같은 날 진행된 BOE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5bp 인상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

업종별로 금융(+1.2%), 소재(+1.0%), 헬스케어(+0.6%) 등 업종들이 상승한 반면, IT(-2.9%), 경기소비재(-2.2%), 통신(-0.6%) 등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특성이 강했음.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10.2%) 가이던스 하향조정 여파와 다음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대형 IT 업종의 낙폭이 컸음. 이날 장기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애플(-3.9%), 마이크로소프트(-2.9%), 테슬라(-5.0%), 엔비디아(-6.8%) 등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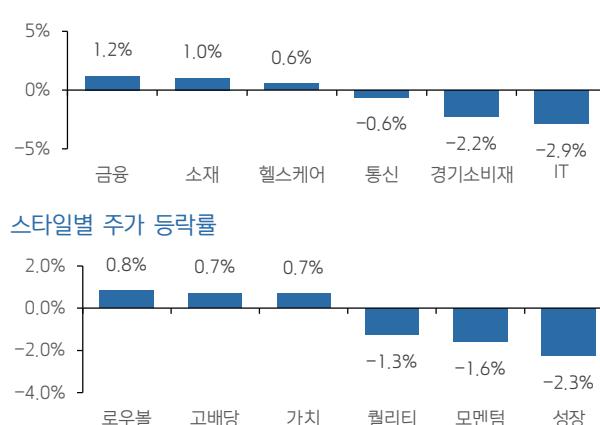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혼조된 모습을 보임. 미국 11월 건축허가는 전월대비 3.6% 증가(전월 +4.2%) 주택착공건수 전월대비 11.8% 큰 폭 반등(전월 -3.1%)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15.4pt(예상 30.0pt, 전월 39.0pt)로 부진, 1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둔화(17→10pt). 11월 미국 산업생산(MoM +0.5% 상승 vs. 예상 +0.7%, 전월 +1.7%)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0.6 만명 vs. 예상 +20 만명)도 시장 예상보다 소폭 부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4,668.67	-0.87%	USD/KRW	1,183.88	-0.16%
NASDAQ		15,180.43	-2.47%	달러 지수	95.98	-0.55%
다우		35,897.64	-0.08%	EUR/USD	1.13	+0.35%
VIX		20.57	+6.64%	USD/CNH	6.38	+0.09%
러셀 2000		2,152.46	-1.95%	USD/JPY	113.71	-0.29%
필라. 반도체		3,766.32	-4.2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001.33	-0.64%	국고채 3년	1.760	-4.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45	-2bp
Eurostoxx50		4,201.87	+1.01%	미국 국채 2년	0.615	-4.8bp
MSCI 전세계 지수		741.88	+0.97%	미국 국채 10년	1.424	-3.2bp
MSCI DM 지수		3,175.11	+1.1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14.50	-0.62%	WTI	71.89	+1.44%
MSCI 한국 ETF		78.23	-0.6%	금	1799.5	+1.9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성장주 급락이 국내 성장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연말 폐장일을 앞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한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물량 출회 가능성
- 12 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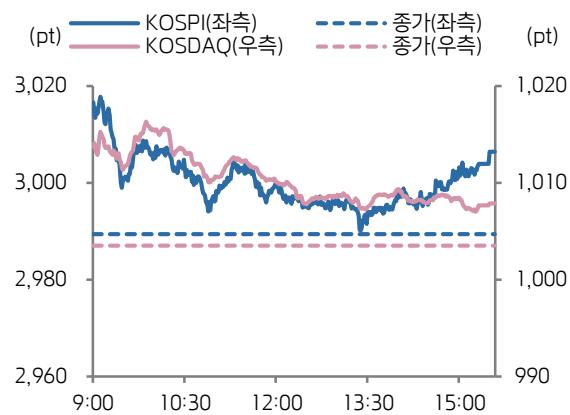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영란은행의 금리인상이나 ECB 의 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22년 3 월)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용시장 상황 및 오미크론 충격 여부를 떠나서 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스탠스 전환이 불가피. 같은 맥락에서 12 월 FOMC 결과를 놓고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한 것은 사실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임박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 판데믹 전후로 고용시장이 달라졌다는 파월의장의 시각 변화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상보다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 15~16 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준, ECB, BOE 등 메이저 3 대 중앙은행의 정책 회의를 한번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금리 변화에 민감한 미국 성장주들의 주가 부진을 초래했던 것으로 판단. 다만,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는 관련 주요 인사들과 시장 참여자들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금번 중앙은행 이벤트를 소화하는데 까지는(or 시장참여자들간 교통정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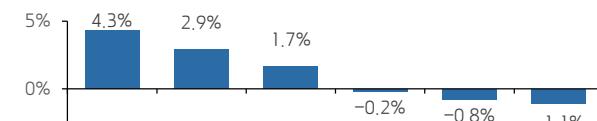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나스닥 등 성장주 주가 급락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적 기대 및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나스닥 급락의 또 다른 배경에는 중앙은행 긴축 부담, 실적부진에 따른 어도비(-10.1%) 주가 급락 이외에도, 18 일(금)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수급변동성 확대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했을 때 미국 증시의 충격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또한 올해 국내 증시 폐장일(30 일)까지 2 주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28 일까지, D+2 일 결제) 최근 주도 테마주를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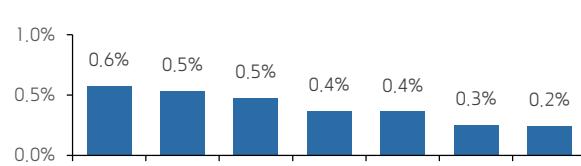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